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2장 죄의 사악성

『산상설교』 상권 제22장, 인쇄 293~30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27~30

> ❓ **실제로 선을 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걸까,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도 죄일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이 단락을 율법의 참뜻에 대한 주님의 둘째 실례로 읽는다. 바리새인은 간음 금지 계명을 몸으로 짓는 행위로만 좁혔고, 주님은 그 계명이 마음을 겨냥한다고 바로잡으신다. 설교자는 본문 풀이에 앞서 길게 돌아간다. 죄론, 곧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왜 오늘 가장 시급한지 묻고, 죄론을 놓치면 십자가와 중생, 전도와 성결, 하나님의 사랑까지 모두 잘못 이해하게 된다고 논증한다. 이어서 본문이 보여 주는 주님의 '진단'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죄의 깊이와 세력, 죄의 교활함, 죄의 사곡성, 죄의 파괴성이다. 마지막에는 청중에게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요구하고, 그 더러움을 씻는 복음에 감사하는 기도로 설교를 마친다.

📜 절별 정리

📜 1. 계명을 행위로 줄인 바리새인 — 율법은 처음부터 마음을 보았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주님이 무엇을 바로잡으시는지부터 짚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간음하지 말라”를 육체적 간음 행위의 문제로만 낮추었다. 그래서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자신은 이 계명 앞에서 완전히 무죄라고 여겼다. 율법의 문자만 붙들고 율법의 정신(영)을 잊었으니, 결국 계명을 파괴한 셈이다. 설교자는 그들의 진짜 문제를 십계명을 제대로 읽지 않은 데서 찾는다. 열째 계명 “이웃의 아내를

그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깨닫고서야 정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잘못을 되풀이한다고 결론짓는다. 몇 가지 선을 행하고 몇 가지 악을 피하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 바리새인은 간음 계명을 행위로만 좁혔다
2. 문자만 지키고 정신을 잊으면 계명이 무너진다
3. 일곱째 계명은 열째 계명과 함께 읽어야 한다
4. 바울도 “탐내지 말라”에서 자기 죄를 보았다
5. 율법은 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마태복음 5:27~28**
> 본문.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이미 마음의 간음이다
>
>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출애굽기 20:14**
> “간음하지 말라” — 바리새인이 행위로만 좁힌 계명
>
> 간음하지 말라

> **출애굽기 20:17**
>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 계명이 욕망까지 다룬다는 증거
>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고린도후서 3:6**
>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 문자주의를 비판하는 원리
>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로마서 7:7

바울이 “탐내지 말라”로 죄를 깨달은 고백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6:15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나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 2. 왜 죄론이 가장 시급한가 — 진화론과 이상주의의 그늘

로이드 존스는 주님의 말씀이 죄의 성질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 주는 데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오해해 그 목적을 무효로 만들었다. 설교자는 죄론이 당대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람들은 죄를 '발달'이나 '기질' 같은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려 한다.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했고 동물성의 잔재를 서서히 벗고 있다는 생각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성경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박한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죄론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이상주의도 함께 문제 삼는다. 이상주의는 인간이 완전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교육과 문화로 바로잡힐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가 실패하고 말썽을 빚는 것도 이 영향 아래 죄론을 가볍게 여긴 탓이라고 진단한다.

1. 율법의 목적은 죄의 사악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2. 당대 사람들은 죄를 심리학과 진화로 풀었다
3. 죄론을 빼면 성경 전체가 무의미해진다

로마서 7:13

율법으로 죄가 심히 죄 되게 드러난다 — 율법의 목적

>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 3. 죄론 없이는 십자가도 중생도 이해할 수 없다

로이드 존스는 죄론의 중요성을 실례로 보여 준다. 첫째 실례는 십자가다. 주님은 왜 굳은 얼굴로 예루살렘을 향하셨는가? 열두 영도 넘는 천사를 불러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설교자는 찬송 한 구절을 인용한다. 죄값을 치를 이가 그분밖에 없었고, 그분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죄가 없었다면 성육신도 필요 없었다.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스도 이전의 헬라 철학자들이 지식과 교훈을 가르쳤어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 실례는 중생, 곧 성령으로 새 마음과 새 성품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중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신약의 죄론을 싫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까지 단언한다.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1. 십자가의 이유는 죄의 문제로만 설명된다
2. 죄가 없었다면 성육신도 필요 없었다
3. 율법도 철학도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
4. 죄의 깊이를 알아야 중생이 필요함을 본다
5. 자기 노력을 의지하면 복음을 부정하게 된다

마태복음 26:53

>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 **로마서 3:10**
> 의인은 하나도 없다 —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근거
>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4. 죄론이 정하는 전도와 성결

죄론은 바른 전도 개념도 정한다. 로이드 존스는 “죄론이 없는 곳에 참된 전도는 없다”고 말한다. 죄를 깨우치지 않고 “예수께 오라”고만 하는 전도는 신약의 전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하고 놀라운 새 삶만 제안하는 방식이 그렇다. 주님은 결단을 강요하시기는커녕 따르려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셨다.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었는지 물으셨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 인간 죄의 악함, 율법의 요구와 형벌, 악행의 영원한 결과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심리적으로' 믿을 수는 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는 분을 보는 신앙이고, 참 전도는 처음부터 회개의 요청이다.
성결도 마찬가지다. 성경의 성결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욕의 문제이므로, 죄짓지 않는 것을 넘어 탐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성결은 사람을 자기 점검으로 이끈다. 신약은 “행복해지고 싶으냐”고 권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자기 실상을 보여 준다. 그러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상태),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그리스도께 도피한다. 성결은 받아들이는 '체험'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이며 따라야 할 그리스도다.

1. 죄를 깨우치지 않는 전도는 신약의 전도가 아니다
2. 주님은 따르려는 자에게 비용을 계산하게 하셨다
3. 참 전도는 율법 설교와 회개 요청으로 시작한다
4. 성결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욕구의 문제다

비용을 계산하라 — 주님이 결단 앞에 장애물을 놓으심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9:23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 제자도의 대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행전 20:21

하나님께 회개, 주 예수께 믿음 — 참 전도의 내용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3:5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 성결이 이끄는 자기 점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마태복음 5:3~6

심령의 가난·애통·온유·주림 — 죄를 본 사람이 걷는 길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죄론이 없는 곳에 참된 전도는 없습니다."

📜 5.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 그리고 진단 ① — 죄의 깊이와 세력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든다. 신앙고백의 궁극적 시금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 성도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들의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 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사랑이 미미한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뿌리는 죄를 모르는 데 있다. 죄가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보고, 그럼에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성함”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본문으로 돌아온다. 주님의 첫째 진단은 죄의 깊이와 세력이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이끄는 마음의 문제다. 눈에 보이는 죄는 '죄'라는 병의 증상일 뿐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증상이 아니라 병이다. 그는 두 환자를 비교한다. 한 사람은 폐렴으로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맨다. 다른 사람은 겉으로 편안히 누워 있지만 몸속의 병이 심장이나 폐를 좀먹고 있다. 둘 다 죽는다면 증상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로이드 존스는 진화론과 성경도 대조한다. 진화론은 사람이 완전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말하니 죄가 있을 자리가 없다. 성경은 사람이 완전하게 지음 받았다가 타락했고, 그때 암 같은 악한 세력이 들어와 사람이 욕망하고 탐하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1.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죄를 알 때 보인다
2. 치료 전에 철저한 진단이 먼저다
3. 죄의 행위는 증상이고 진짜는 마음의 병이다
4. 겉이 평온해도 속병으로 죽을 수 있다
5. 사람은 완전하게 지음 받았다가 타락했다

> **마태복음 15:19**
>
> 악한 생각·살인·간음이 마음에서 나온다 — 죄의 뿌리는 마음
>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 **마태복음 5:28**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징조가 아니라 질병인 것입니다.”

📜 6. 진단 ② — 죄의 교활함

둘째 진단은 죄의 교활함이다. 죄는 우리가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속인다. “유혹은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고 감사하는 것까지는 옳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해 버리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계속 물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죄는 동물적 본성에만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 전체를 물들인다. 로이드 존스는 구체적인 예를 든다. 간음은 꿈도 꾸지 않을 존경받는 사람들이 소설이나 전기를 읽으며 상상 속에서 죄를 즐긴다. 서평에서 부정한 행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책을 산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나 사회학적 연구인 척한다. 그러나 실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탓하는 방식이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며 손이나 눈 같은 특정 기질로 죄를 설명해 버린다. 설교자는 다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기질 탓으로 돌리게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교활함이라고 짚는다. 문제는 마음에 있고 나머지는 그 표현일 뿐이다.

1. 행위만 피하면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수다
2. “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가”를 계속 물어야 한다
3. 상상과 독서로 죄를 즐기는 것도 마음의 죄다
4. 관심·연구라는 명분으로 즐김을 가린다
5. 타고난 기질 탓도 죄의 교활함이다

> **마태복음 5:28**
> “음욕을 품고 보는” 것 — 상상과 시선의 죄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15:19**
> 문제는 기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 7. 진단 ③④ — 죄의 사곡성과 파괴성, 그리고 자기 점검

셋째 진단은 죄의 사곡성(邪曲性), 곧 선한 것을 비틀어 악으로 만드는 성질이다.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본능이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손과 눈 같은 귀한 선물도 비유적으로 말해 찍어 내고 빼어 버려야 할 짐이 된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거룩하고 선한 율법까지 죄의 기회로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 말라”는 금지가 오히려 그것을 상상하게 하고 결국 행하게 한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의 비틀린 성품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깨끗하지 않은 자에게는 선한 것도 해가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 원리를 근거로 학교에서 어린 학생에게 성윤리를 가르치는 데 반대한다는 자기 견해를 밝힌다. 학생들은 깨끗하지 않으므로 몰랐던 것을 알려 주면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현대 교육을 비극이라 부른다. 넷째 진단은 죄의 파괴성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죄는 사람과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결국 지옥과 형벌로 이끈다.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죄와 결코 함께하실 수 없다. 설교자는 결론으로 묻는다. 간음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 삶에 만족한다면 아직 자기 마음의 검고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다. 생각과 욕망과 상상을 살펴 씻음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내 죄책을 지시고 보혈로 씻으시며 새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주신다는 복음에 감사한다. 설교는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새 이름을 내 마음에 쓰소서”라는 찬송의 기도로 끝난다.

1.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능이 죄로 비틀렸다

3. 율법은 선하고 문제는 우리 성품이다
4. 죄는 죽음과 지옥으로 이끄는 파괴적 실재다
5. 씻음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마태복음 5:29~30

지체를 잃는 것이 지옥보다 낫다 — 죄의 파괴성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로마서 7:8

죄가 계명을 기회 삼아 탐심을 일으킨다 — 사곡성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로마서 7:12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 잘못은 율법에 있지 않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디도서 1:15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 더러운 자에겐 선도 해가 됨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 — 죄의 최종 결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율법의 조문과 영
조문은 계명의 글자 그대로의 겉뜻이고, 영은 그 계명이 겨냥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참 의도다.

죄론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깊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바리새인
율법을 겉으로 철저히 지키는 데 자부심을 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중생
성령께서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주시는 일이다.

성결(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삶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이상주의
인간이 교육과 문화로 계속 나아져 완전에 이를 수 있다는 근대의 낙관적 믿음이다.

실족
걸려 넘어진다는 뜻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곡성
요사스럽고 비뚤어진 성질로, 선한 것을 비틀어 악하게 만드는 죄의 성격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주님은 간음 계명을 행위에서 마음으로 되돌리시며 죄의 진짜 자리를 보여 주신다.
- 죄론을 놓치면 십자가, 중생, 전도, 성결,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얕아진다.
- 죄는 증상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며, 교활하게 속이고, 선한 것을 비틀고, 결국 사람을 파괴한다.
- 철저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있다. 자기 마음의 더러움을 본 사람만이 보혈의 씻음과 새 마음을 구한다.
- 그 진단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